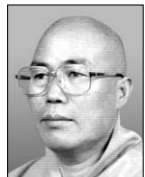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맹회장 정여 스님은 15-16일 이틀간 경주 중앙호텔에서 36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를 개최한다.



일주문



강원지역 수해사찰에 성금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10월 22일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사찰에 수해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강북장애인복지관 관장 취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부관장 명궁 스님은 10월 15일 복지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신임 관장으로 취임했다.



네팔 불교학교 설립자 출국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김재일 회장은 네팔 내 불교학교 설립을 위해 11월 21일 네팔로 출국한다.



성열 스님 초청 특강 우리는선우 박광서 이사장(사강대 교수)은 1일 서울 장충동 우리선우 법당에서 강남포교원장 성열 스님 초청, 특강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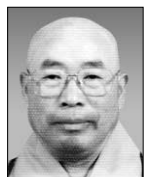
'웃어요, 지리산!' 청소 캠페인 지리산생명연대 상인대표 도법 스님(실상사 주지)은 9일 지리산 일대에서 '웃어요, 지리산!' 청소 캠페인을 벌인다. (063)636-1945



조성택 교수 초청 법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서돈 각 이사장은 5일 마포 불교방송 법당에서 고려대 철학과 조성택 교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조각전' 14일까지 연장 조각가 한기늘 씨는 서울 법원사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구도'를 11월 14일까지 연장한다. (02)733-5322



순직경찰관 추모 위령제 부천시 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성인 스님은 18일 경찰서 경승실에서 순직 경찰관 제13주기 추모 위령제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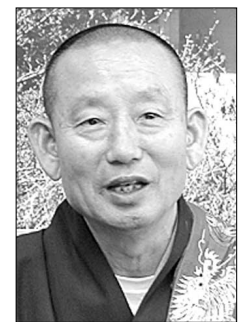
동국대서 추계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장 권기종 동국대 교수는 1일 서울 동국대에서 '계룡산 갑사 성보의 불교문화사적 고찰'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사청년회장 이·취임법회 조계사청년회 정우식 회장은 제19대, 제20대 회장단 이·취임법회를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평화통일 일구는 불사의 시작

북한 영통사 기와 지원 운덕 스님



"개성 영통사를 복원할 기와의 북한 지원은 평화통일을 일구는 진정한 불사의 시작입니다" 천태종은 10월 27일 고려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출가·열반 사찰인 개성 영통사 복원에 필요한 1차분 기와 10만장을 북한측에 전달했다. '통일기와'로 명명된 이 기와는 18톤 트럭 20대에 실려 새로 개통된 경의선 육로로 통해 영통사로 향했다. 임진각 광장에서 열린

의 건물을 포함한 영통사를 온전히 복원하는 데불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남북 분단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교류협력 추진과 관련해서는 "11월 10일과 24일 각각 15만장의 '통일기와'를 북측에 주로 명명된 이 기와는 18톤 트럭 20대에 실려 새로 개통된 경의선 육로로 통해 영통사로 향했다. 임진각 광장에서 열린

내년 10월 낙성... 한중일 천태종도 참석

북측 기념행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사진)은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운덕스님은 '통일기와' 전달 직후 "오늘 행사는 남북불교 교류 확대는 물론 남한 국민들의 가슴에 통일의 씨앗을 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25등

사와 인근 지역의 불교문화재 조사 및 발굴, 영통사 성지순례단 방북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향후 교류활동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북한어린이 위해 日서 모금했어요"

日 시민단체 '피스코트' 회원 금령하 씨



"98년 법륜 스님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했습니다. 그 때 스님의 강연을 듣고 북한어린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는 배의 이름이다. 이런 피스보트에서 올해 5월 31일부터 3개월 동안 일본 각지에서 북한어린이가 돕기 운동을 했다. 170만엔(한화 1천8백만원 가량)을 모아 정토회에 기금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이리크 전이 발발하고 나서 일본에서는 전쟁반대를 위해 몇십 년 만에 4-5만 명의 시민이 모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선제공격 위협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 반이리크 전에 뜻을 같이하는 젊

3개월 동안 170만엔 모아 정토회 전달

10월 27일 정토회 사무실에서 만난 금령하(琴玲夏, 36·사진) 씨는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했다. 이유를 물으니 재일교포 3세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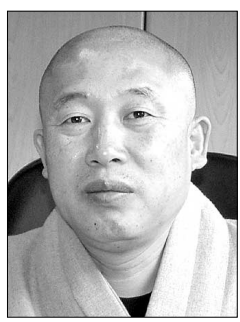
은이들을 중심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을 돕는 것은 상상외로 어렵다고 한다. 일본인 납치 사건을 필두로 북핵 위협 등 여러 전회 반북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민들레 흩날리듯 일본 각지로 퍼져나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포교의 활력소 구실할 것"

부루나 전법봉사 단장 계성 스님



"전법을 수행의 제일 목표로 삼고, 여래의 사자가 되어 대중들에게 감로법을 전하겠습니다." 11월 1일 조계사에서 발대식을 가진 부루나 전법봉사단 단장 계성 스님(강화 전등사 주지·사진)은 "깨달음은 부처님의 지혜의 눈이요, 전법교화는 불교 생명의 끈"이라며 "법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

가 불교포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불교계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희망의 단체가 되도록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부루나전법봉사단은 이 시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을 위해 법문봉사를 서원한 법사들의 전법결사체"라고 밝힌 스님은 "전국 지역별 법사지원 네트워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를 모집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직장 직능단체와 군 법당, 대학교 불교학생회등을 찾아가 법포시에 나설 계획인 부루나전법봉사단은 앞으로 분기마다 법사모임을 갖고, 법문봉사 활동 내용 분석과 법회에 필요한 각종 자료 축적 및 설법교안 발간에도 전념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한국불교아동문화회(회장 이준범)는 10월 23일 동화작가 박춘희 씨와 어개동무 편집국장 김영만 씨를 '제23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

박춘희 씨는 진주교대와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소년중앙>을 통해 아동문학계에 등단, 제16회 한국아동문학상을

23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박춘희·김영만 씨 공동 수상

수상하고 <달맞이꽃> <가슴에 뜨는 별> 등의 창작 동화집을 출간했다. 김영만 씨는 또한 1900년에 단편 동화 '까만 눈동자'로 현대아동문학상 신인상을 수상, 제1회 불교아동문학상 신인작가상과 불교예절 장편동화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 등을 통해 어린이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시상식은 12월 6일 한글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김은경 기자



박춘희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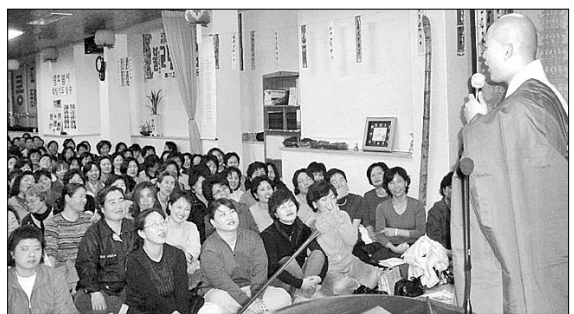
김영만 씨

독거·저소득노인 500명 경로잔치



부산 해운대사주지 원혜는 10월 26일 해운정사 공양실에서 지역 독거 노인 및 저소득 세대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해운정사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 어르신들은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수재민돕기 원성 스님 초청 법회



통도사 해운대포교원 부처님마을(주지 효범)은 10월 24일 부산 해운대 신도시시장 내 부처님 마을 법당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성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태풍 매미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혼 예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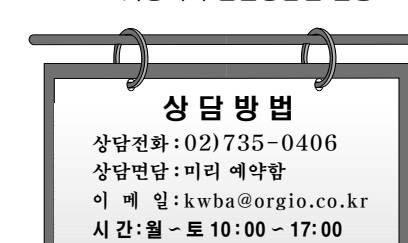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혼예방센터]에서는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더불어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있는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사회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예방센터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정토사회) 만들기 위해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예방센터 소장 김묘주 합장

행복한 가정 상담소

행복한 가정은 건전한 사회의 터전입니다. 주부여러분!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고민을 함께 나누어주세요. 남편으로 인한 고민, 시댁 식구로 인한 고민, 자녀들로 인한 걱정 등을 함께 고민하면 마음의 짐이 줄어들고, '행복한 가정 상담소'와 함께 가정문제를 의논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불교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남편의 의식개혁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전문상담가 심화교육

후원 : 행정자치부

-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 및 가해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합회에서는 가정폭력 남편의 의식개혁을 위한 상담가 심화교육을 통하여 가해자의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대 상: 가족폭력관련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 병원내 상담관련 종사자
◆일 시: 2003년 11월 10일 ~ 11월 11일 (2회 12시간=기본과정: 5만원) 2003년 11월 13일 ~ 11월 14일, 15일 (3회 18시간=심화과정: 7만원)
◆장 소: 연꽃 교육장 (인사동사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인 원: 30명(선착순) 11월 10일까지접수
◆수강료: 12만원(우리은행 : 098-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문 의: 02-738-5586, 5568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Table with 4 columns: Date, Time, Course Name, Instructor. Includes details for '1.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이해', '2. 가정폭력의 가족 치료적 접근', '3.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I', '4.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II', '5.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의 실제 III'.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심화과정)는 본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가해자 부분 12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